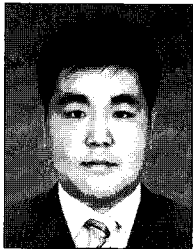


# 축산환경시설기계산업 동향 및 발전방향



**소재광**  
한국축산환경시설  
기계협회 과장

국내·외의 환경변화가 낙농육우산업에 불리하게 변하고 있지만, 낙농육우산업은 여전히 규모화되어가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축산업용 기자재는 낙농육우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각종 질병의 예방과 노동력의 생력화를 위한 필수품이 되고 있다.

기계화, 자동화를 이뤄야 관리자 1인당 사육마리수를 증가시킬 수가 있으며, 이는 기업화와 전업화를 통한 규모화의 근간이 되고 경쟁력이 있게 되는 것이다.

<표 1> 연도별 가구(호)당 사육두수 변화 추이

단위 : 두/가구(호)

연도	한육우	젖소	돼지	닭	비고
1980	1.4	8.0	3.5	58.0	
1990	2.6	15.3	34.0	462.5	
2000	5.5	41.8	338.5	509.4	
2010	17.0	71.7	1,411.6	41,444.4	

\* 닭은 '06년부터 3,000수 이상 사육가구 대상으로 조사한 것임(2011농림수산식품주요통계)

<표 2> 연도별 축산업용 기자재 매출 추정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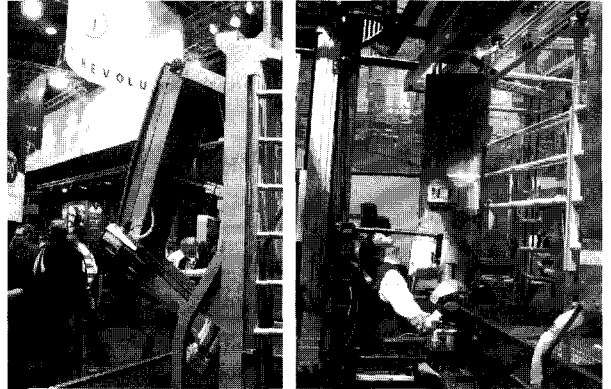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구분	2003	2005	2006	2007	2009	2010
합계	605,624	829,564	861,414	732,202	820,066	834,602

\* 2010년도 매출액(추정액)은 2003년 대비 약 1.4배의 증가를 보이고 있음

현재의 국내 축산업용 기자재의 공급률은 점차 포화상태로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해마다 축산업용 기자재에 대한 농가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보다 편리하고 내구성이 좋은 기자재를 생산하기 위해 기자재 업계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생산원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기에 국내 시장에서 인정을 받는 업체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추세가 꺾이지 않으려면 먼저 기자재의 부품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겠다. 부품의 표준화는 기자재 제조원가를 절감할 수 있게 하며, 기자재의 유지보수를 쉽게 하고 그에 따른 비용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그 결과 기자재의 사후 관리(A/S) 기능이 강화되어 양축농가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인정을 받은 업체의 경우,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수많은 해외박람회에도 참가하여 지속적으로 문을 두드리고 있기에 축산업용 기자재의 품질이 현재보다 더욱 더 향상된다면 해외기자재에 비해 저렴하고 내구성이 떨어지지 않는 우리 기자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현재 기계공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 산업이 수출산업으로 성장하여 성공을 이루면서 기계공업이나 소재산업이 선진국에 비추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고 전자 등 전 산업 분야에서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게 되었으며 축산업용 기자재 또한 친환경 축산에 맞추어 좋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여 공급할 수 있게 되어 품질 향상의 여건이 점차 성숙되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점차 양축가의 수는 감소하는 반면 축산의 규모는 대규모화되어 가고 있다. 생산력을 높이기 위한 시설의 확충이 요구되어 각종 질병과 위해요소를 차단하고 방지하기 위하여 축산업용 기자재의 도입이 없이는 노동력 및 생산력을 높일 수가 없고, FTA에 대응하여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지원에 따른 시설현대화, 규모화가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의 축산환경시설이 노후되었고, 계획적으로 규모를 확장한 것이 아닌 무분별한 규모 확장으로 보온과 단열, 방역 및 분뇨처리 시설이 부실하여 환경관리 시스템 등이 효율적으로 가동되지 않고 있어 각 축사의 사육단계에 맞게 시설과 환경을 리모델링 해야하는 시점에 와 있다.

농업의 구조적 변화, 국민 식생활의 변화, 농산물시장의 개방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래의 축산업은 환경과 안전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하이테크 복합화에 의한 무인화 기술 등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고 가족의 개별 생체정보와 경영정보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양돈과 같은 중소축종의 경우에는 작업의 합리화, 질병 및 환경대책이 필요하게 될 것이나 낙농의 경우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물질 순환을 기본으로 한 저투입 지속형 낙농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축산업용 기자재 산업은 작업의 종류가 많고 수요의 한정에 따른 다품목 소량생산의 소기업 산업으로, 영세한 경영과 주문생산에 의존하는 등 계획생산이 어려운 특징이 있다. 문제점과 이같은 문제점 타개를 위한 발전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문제점

**“시설·기계의 투자비용 부담 최소화를 위한, 생산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응용될 수 있는 기술개발, 품질향상, 산·학·연 공동구심체 육성과 이를 위한 정부의 행정 자원이 요구된다.”**

품질(기계공학적 내구성 및 생산성 향상이 검증된 품질) 및 생산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응용될 수 있는 산·학·관·연을 연결한 공동기술개발, 품질 향상, 실무기술의 보급에 실질적인 체계구축과 이를 위한 정부의 행정지원이 미흡하며 정부 및 연구소의 시설·기자재 전담요원이 부족하여 담당 업무의 한계가 모호하며, 시설·기자재 효율성을 위한 품질검사에 대한 전문가 및 기준 설정이 없다.

또한, 시설·기계의 품질 및 사후관리(A/S) 기능 부족에 따른 악성 재투자가 초래되고 있다. 국내 축산환경시설·기계산업을 정예화된 제도권으로 흡수하지 못하고 방치한 결과, 축산업 발전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유통혼란 및 양축가의 피해 속출하고 사후 A/S 제도의 기능 부족 및 단종 제품의 보급에 따른 원가부담 및 악성 재투자를 초래하고 있다.

### 해결 방안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축산업 생산성향상 및 원가절감형 현장응용 기계·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시설·기계의 투자비용 부담을 최소화하여 원가절감을 이룰 수 있는 효율적인 시행제도를 마련하고 생산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응용될 수 있는 기술개발, 품질향상, 실무기술의 보급 체계구축을 위한 산·학·연을 연결한 공동구심체 육성과 이를 위한 정부의 행정지원이 요구된다.

또한, 정부 및 연구소의 시설·기자재 전담요원의 확보 및 축산환경시설·기자재 효율성을 위한 품질(기계공학적인 검정 및 생산성 검정) 검사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㉞